

|            |  |
|------------|--|
| <b>경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부문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li> <li>- 11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3.4로 전년동월대비 16.63% 감소</li> <li>○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4.9% 감소</li> <li>- 1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2.5%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8.7% 증가</li> <li>- 판매액 증가의 원인으로 주말일수 및 세일일수 증가인 것으로 판단됨</li> <li>○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li> <li>- 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여 전국 평균인 4.7%보다 0.6%p 높게 상승</li> <li>- 전월에 비하여 주류담배, 주거 및 수도, 통신, 교육등의 부문 포함, 식료품, 의복, 가구집기 가사용품 등은 전월대비 0.2% 상승</li> </ul>        |
| <b>고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li> <li>-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p 감소한 60.9%로 남자는 72.4%, 여자는 50.1%임</li> <li>○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li> <li>- 1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0천명(-1.2%) 감소한 4,853천명</li> <li>-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1천명(-1.5%), 여자는 19천명(-0.9%) 감소하여 남자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확대됨</li> <li>○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li> <li>- 12월 서울의 실업률은 3.3%로 전월동월대비 0.2%p 상승, 성별로 남자는 3.7%, 여자는 2.6% 기록</li> </ul>  |
| <b>부동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li> <li>-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3,014,715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1.3% 증가</li> <li>- 공공부문은 공기업의 신규 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대폭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개발공사 부문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 감소</li> <li>○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확대</li> <li>- 서울은 지난달에 이어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락 폭(-1.2%) 확대</li> <li>- 강북지역은 0.9% 하락, 강남지역은 전월에 비해 1.6% 하락</li> <li>○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크게 하락</li> <li>-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크게(-2.0%) 하락</li> <li>- 강북지역은 1.6% 하락하였고, 강남지역은 2.5% 하락</li> </ul> |
| <b>금융</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li> <li>- 1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7조 3,123억원 규모</li> <li>○ 11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146개로 전년동월대비 29.1%(471개) 감소</li> <li>○ 11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91개로 전월보다 20개 감소</li> <li>○ 12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지속적 감소세</li> <li>- 12월 서울의 수출은 22.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순</li> <li>- 12월 서울의 수입은 54.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6.2%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도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의류, 곡실류 등의 순</li> </ul>                                       |

## | 생 · 산 |

### 11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의 감소로 인해 크게 부진
  - 11월 중 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10.7%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한 모습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화학제품,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로는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14.1%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2.3%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에서 부진하여 1.6% 감소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3.4(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인쇄 및 기록매체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및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0.9% 감소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3% 감소
  -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부문은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부문은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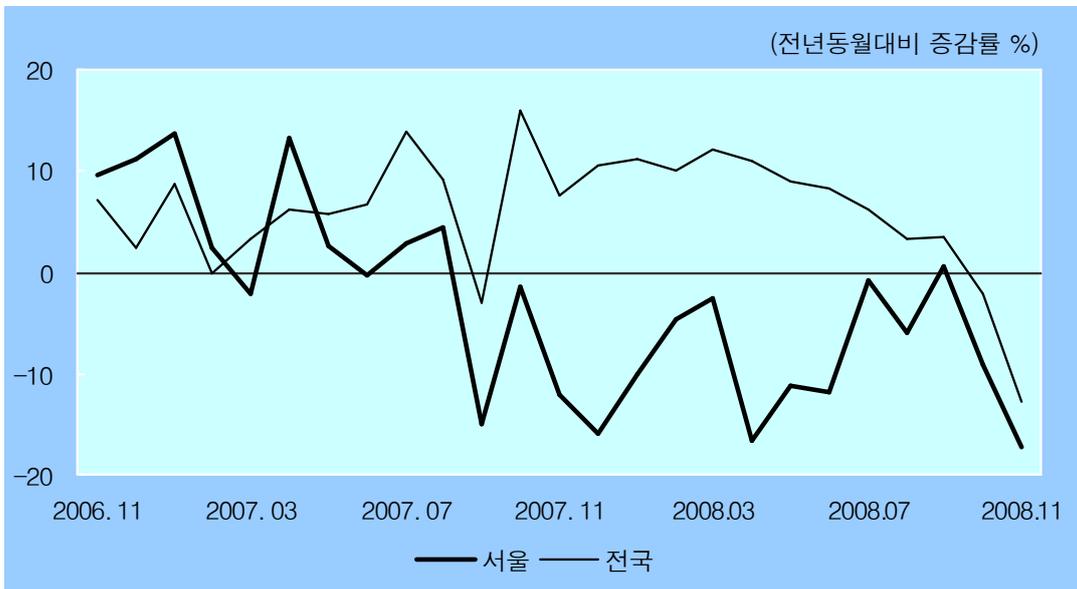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               |                 |                  |
|-------|----------|-----------------|----------------|----------------|---------------|-----------------|------------------|
|       | 11월      | 7월              | 8월             | 9월             | 10월p          | 11월p            |                  |
| 전년동월비 | 전국       | 7.5<br>(0.1)    | 6.3<br>(-0.3)  | 3.2<br>(-2.2)  | 3.6<br>(-0.6) | -2.2<br>(-2.2)  | -12.8<br>(-10.7) |
|       | 서울 (제조업) | -12.1<br>(-6.9) | -0.8<br>(14.0) | -6.0<br>(-0.9) | 0.5<br>(6.6)  | -9.2<br>(3.0)   | -17.3<br>(-15.1) |
|       | 중공업      | -24.0<br>(-9.1) | -19.0<br>(2.8) | -14.3<br>(7.0) | -6.0<br>(5.2) | -22.8<br>(-2.7) | -30.9<br>(-18.7) |
|       | 경공업      | -3.4<br>(-5.7)  | 10.8<br>(20.2) | -0.9<br>(-4.6) | 4.2<br>(7.4)  | -1.2<br>(5.8)   | -9.3<br>(-13.4)  |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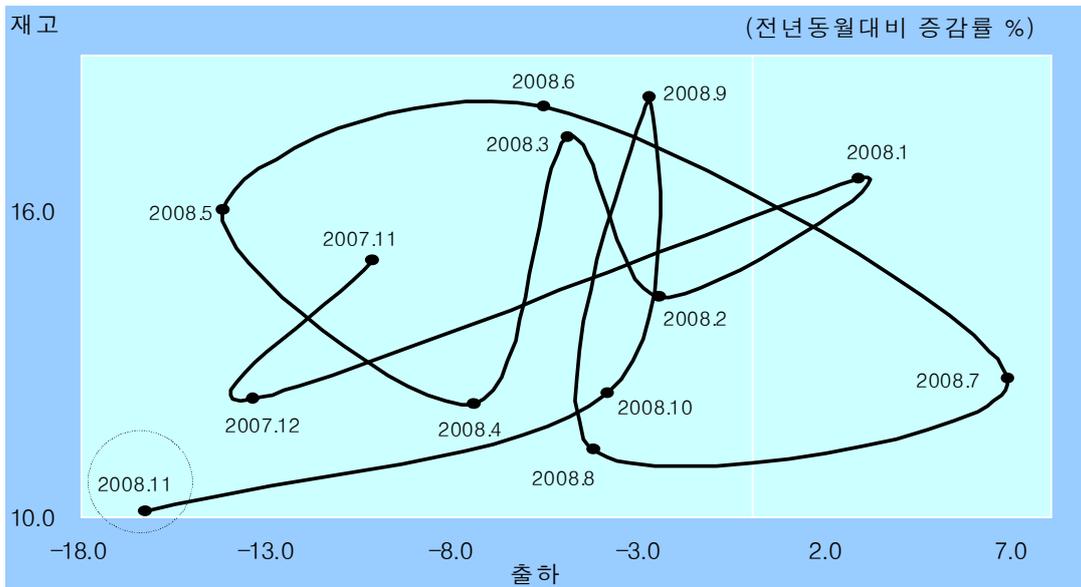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11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11월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70.1로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복 및 모피, 식료품, 1차금속 등에서 증가
  - 출하 및 재고 모두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      |          |      |
|------|------|----------|------|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 재고조정 | 재고감소 | 의도된 재고증가 | 재고누증 |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증가

- 11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29.6%로 전월대비 10.8%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73.7%로 전월대비 30.1%p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복 및 모피, 식료품, 1차금속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52.6%p 증가한 220.3%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1.7%p 감소한 152.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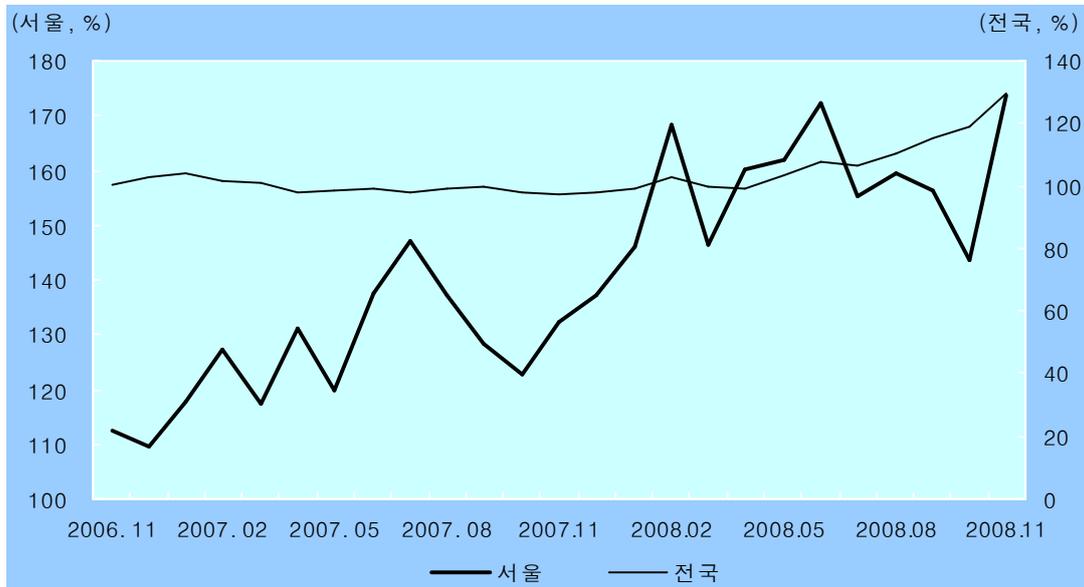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       |       | 전월대비<br>증감 |      |
|-----|-------|-------|-------|-------|-------|-------|------------|------|
|     | 11월   | 7월    | 8월    | 9월    | 10월p  | 11월p  |            |      |
| 재고율 | 전국    | 97.7  | 106.4 | 110.0 | 115.2 | 118.8 | 129.6      | 10.8 |
|     | 서울    | 122.7 | 155.1 | 159.4 | 156.1 | 143.6 | 173.7      | 30.1 |
|     | 중공업   | 120.9 | 175.9 | 159.6 | 157.9 | 167.7 | 220.3      | 52.6 |
|     | 경공업   | 123.3 | 143.6 | 157.3 | 153.5 | 131.2 | 152.9      | 21.7 |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11월 서울 대형소매점 세일일수 증가로 판매액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에 비해 6.3%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의약품·의료용품, 화장품 및 비누, 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 등의 내구재는 감소

## ■ 서울 대형소매점 주말일수 및 세일일수 증가로 판매액 증가

- 11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5,59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4.9% 상승
- 백화점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로는 주말일수 및 세일일수 증가로 음식료품, 귀금속류, 통신기기 판매액 증가로 2.5% 증가
- 대형마트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점포신설(69개→74개) 및 주말일수 증가(2일)로 주방용품, 음식료품의 판매액 상승으로 8.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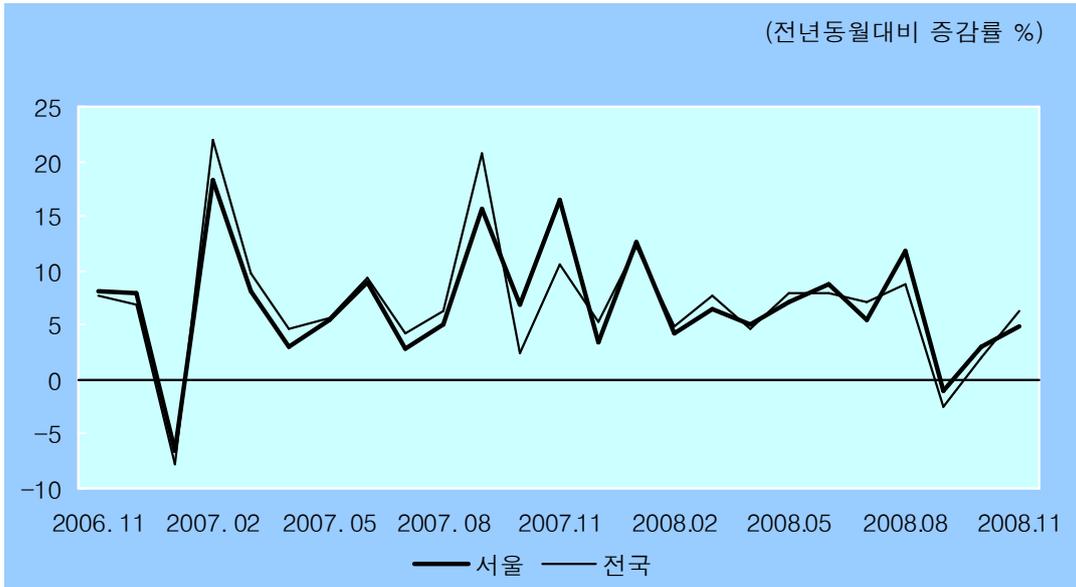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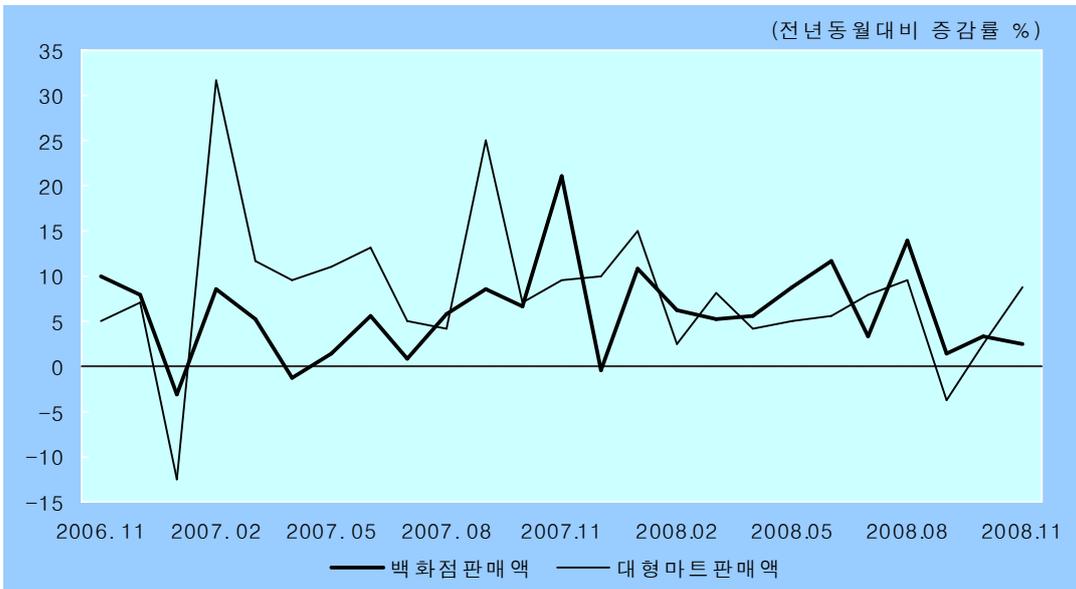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                  |                 |                 |
|-----|---------------|------------------|-----------------|------------------|------------------|-----------------|-----------------|
|     | 10월           | 6월               | 7월              | 8월p              | 9월p              | 10월p            |                 |
| 판매액 | 전국            | 4190.2<br>(10.5) | 4054.8<br>(7.1) | 3877.2<br>(8.8)  | 4375.3<br>(-2.5) | 4174.9<br>(2.1) | 4453.1<br>(6.3) |
|     | 서울            | 1486.1<br>(16.4) | 1298.8<br>(5.5) | 1254.9<br>(11.7) | 1444.2<br>(-1.0) | 1450.2<br>(3.0) | 1559.0<br>(4.9) |
|     | 백화점           | 908.5<br>(21.1)  | 680.9<br>(3.4)  | 639.4<br>(14.0)  | 784.2<br>(1.4)   | 861.1<br>(3.3)  | 931.2<br>(2.5)  |
|     | 대형마트<br>(할인점) | 577.6<br>(9.6)   | 617.8<br>(7.9)  | 615.4<br>(9.5)   | 660.0<br>(-3.7)  | 589.0<br>(2.4)  | 627.7<br>(8.7)  |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1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10월 이후 상승세로 반등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전월에 비하여 통신부문만 1.4% 하락하였고,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12월 이후 상승세로 반등

-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으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0%)보다 높게 상승, 반면 경기, 제주는 보합이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그밖의 도시는 전도시 평균보다 하락
- 전월에 비하여 주류·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교육 등의 부문은 보합이며 석유류 등이 포함된 교통 부문은 하락 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복·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등 그밖의 모든 부문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하락,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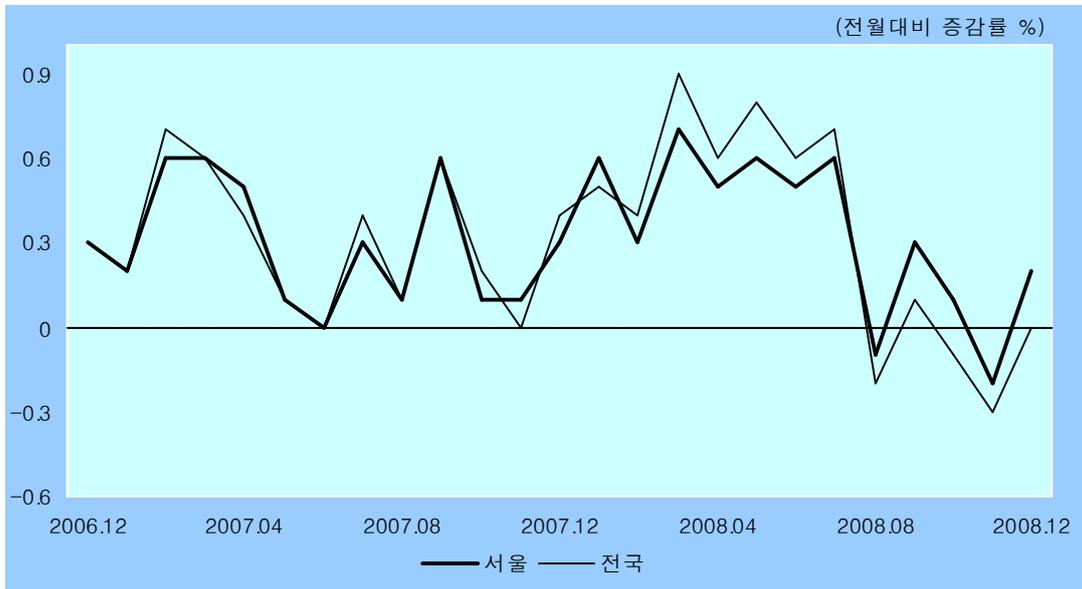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전국:-0.5%)로 하락, 전년동월대비 2.9%(전국:3.0%)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4%(전국:4.2%)상승 전년 동월대비 7.9%(전국:-5.8%) 하락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 구 분 | 2007년     |               | 2008년         |               |                 |                 |                 |               |              |
|-----|-----------|---------------|---------------|---------------|-----------------|-----------------|-----------------|---------------|--------------|
|     | 12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전월비 | 전국        | 0.4<br>(3.6)  | 0.7<br>(5.9)  | -0.2<br>(5.6) | 0.1<br>(5.1)    | -0.1<br>(4.8)   | -0.3<br>(4.5)   | 0.0<br>(4.1)  |              |
|     | 서울        | 0.3<br>(3.4)  | 0.6<br>(5.0)  | -0.1<br>(4.8) | 0.3<br>(4.5)    | 0.1<br>(4.4)    | -0.2<br>(4.2)   | 0.2<br>(4.1)  |              |
|     | 상품<br>성질별 | 상품            | 0.5<br>(4.2)  | 1.4<br>(8.0)  | -0.5<br>(7.4)   | 0.4<br>(6.4)    | -0.1<br>(6.0)   | -1.1<br>(4.9) | 0.3<br>(4.6) |
|     |           | 서비스           | 0.2<br>(3.1)  | 0.3<br>(3.5)  | 0.2<br>(3.6)    | 0.1<br>(3.4)    | 0.2<br>(3.6)    | 0.4<br>(3.8)  | 0.1<br>(3.7) |
|     | 생활물가      | 0.4<br>(4.6)  | 0.6<br>(5.7)  | -0.3<br>(5.5) | 0.1<br>(4.6)    | -0.3<br>(4.1)   | -0.4<br>(3.6)   | -0.4<br>(2.9) |              |
|     | 신선식품      | -0.8<br>(6.5) | 3.5<br>(-7.5) | 4.7<br>(-3.3) | -1.7<br>(-12.7) | -2.0<br>(-15.6) | -2.0<br>(-11.7) | 3.4<br>(-7.9) |              |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 12월 15세 이상인구는 39,8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3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0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0.2%)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03천명으로 56천명(0.4%)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929천명으로 17천명(-0.2%)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음

###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전국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 12월 15세 이상 인구는 8,28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0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1.4%)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 구 분         |    | 2007년          | 2008년          |                |                |                |                |                |
|-------------|----|----------------|----------------|----------------|----------------|----------------|----------------|----------------|
|             |    | 12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경제활동<br>인구  | 전국 | 0.9<br>(-2.0)  | 0.5<br>(-0.2)  | 0.7<br>(-1.2)  | 0.5<br>(0.3)   | 0.4<br>(0.5)   | 0.4<br>(-0.1)  | 0.2<br>(-2.2)  |
|             | 서울 | -0.1<br>(-1.2) | -0.3<br>(0.2)  | -0.1<br>(-0.5) | -1.3<br>(-0.7) | -1.7<br>(-0.2) | -1.8<br>(-0.1) | -1.4<br>(-0.8) |
|             | 남자 | 0.2<br>(-1.0)  | -0.4<br>(0.6)  | -0.4<br>(-0.5) | -0.9<br>(-0.9) | -0.9<br>(-0.2) | -1.0<br>(0.2)  | -1.1<br>(-1.1) |
|             | 여자 | -0.5<br>(-1.3) | -0.2<br>(-0.3) | 0.3<br>(-0.6)  | -1.7<br>(-0.4) | -2.7<br>(-0.2) | -2.8<br>(-0.3) | -2.0<br>(-0.5) |
| 경제활동<br>참가율 | 전국 | 61.0           | 62.3           | 61.5           | 61.6           | 61.9           | 61.8           | 60.4           |
|             | 서울 | 62.3           | 62.6           | 62.2           | 61.7           | 61.6           | 61.5           | 60.9           |
|             | 남자 | 73.9           | 74.5           | 74.1           | 73.4           | 73.2           | 73.2           | 72.4           |
|             | 여자 | 51.5           | 51.3           | 50.9           | 50.7           | 50.6           | 50.4           | 50.1           |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 12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전국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12월 취업자는 23,2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0.1%)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5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0%) 증가하였고, 여자는 9,669천명으로 16천명(-0.2%)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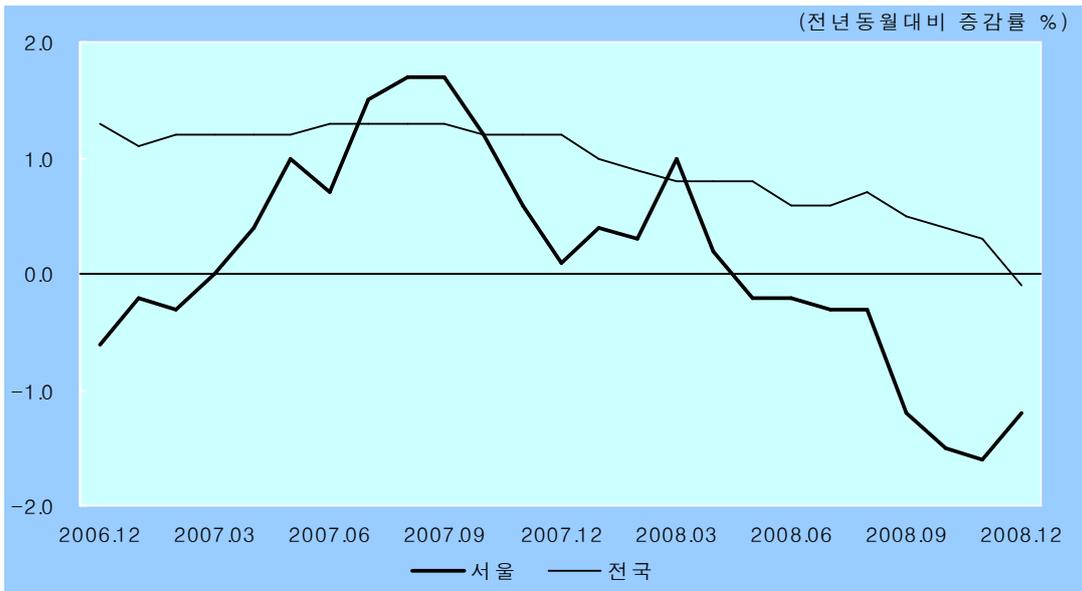
- 12월 취업자는 4,8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1.2%)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74천명, 여자는 2,0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1천명(-1.5%), 여자는 19천명(-0.9%)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천명(1.9%)이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2천명(-40.4%), 제조업 65천명(-9.8%), 건설업 8천명(-1.9%), 도소매·음식숙박업 20천명(-1.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천명(-0.7%)이 각각 감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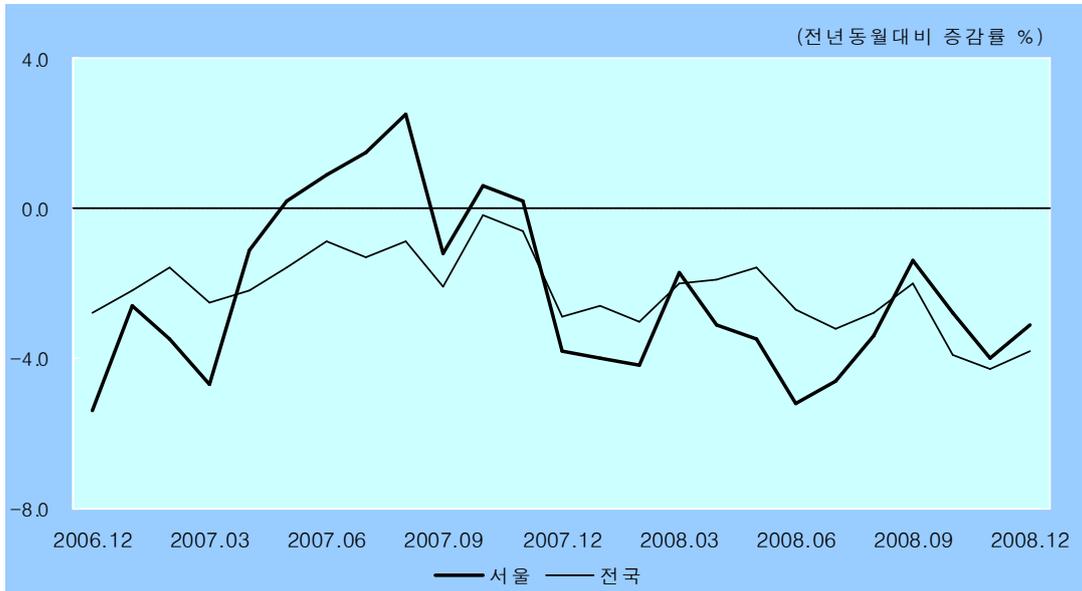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 2007년          | 2008           |                |                |                |                |                |
|------------|--------|----------------|----------------|----------------|----------------|----------------|----------------|----------------|
|            |        | 12월            | 7월             | 8월             | 9월.0           | 10월            | 11월            | 12월            |
| 취업자        | 전국     | 1.2<br>(-2.0)  | 0.6<br>(-0.2)  | 0.7<br>(-1.2)  | 0.5<br>(0.5)   | 0.4<br>(0.5)   | 0.3<br>(-0.1)  | -0.1<br>(-2.4) |
|            | 서울     | 0.1<br>(-1.3)  | -0.3<br>(0.2)  | -0.3<br>(-0.9) | -1.2<br>(-0.3) | -1.5<br>(-0.2) | -1.6<br>(-0.2) | -1.2<br>(-0.9) |
|            | 남자     | 0.9<br>(-1.2)  | -0.1<br>(0.4)  | -0.1<br>(-0.7) | -0.5<br>(-0.7) | -0.8<br>(-0.3) | -1.4<br>(-0.3) | -1.5<br>(-1.3) |
|            | 여자     | -0.8<br>(-1.4) | -0.6<br>(-0.1) | -0.7<br>(-1.1) | -2.1<br>(0.4)  | -2.3<br>(-0.1) | -1.9<br>(-0.1) | -0.9<br>(-0.4) |
| 청년층<br>취업자 | 전국     | -2.9<br>(-1.6) | -3.2<br>(2.3)  | -2.8<br>(-2.6) | -2.0<br>(-1.7) | -3.9<br>(-0.7) | -4.3<br>(0.1)  | -3.8<br>(-1.0) |
|            | 서울     | -3.8<br>(-3.0) | -4.6<br>(2.3)  | -3.4<br>(-1.1) | -1.4<br>(-0.9) | -2.8<br>(-2.0) | -4.0<br>(-0.2) | -3.1<br>(-2.2) |
| 고령층<br>취업자 | 전국     | 3.4<br>(-6.5)  | 1.8<br>(-0.9)  | 1.5<br>(-0.8)  | 2.1<br>(2.1)   | 2.1<br>(0.4)   | 3.3<br>(-0.9)  | 1.3<br>(-8.4)  |
|            | 서울     | -0.5<br>(-2.8) | -0.9<br>(0.0)  | -0.4<br>(-0.1) | -3.4<br>(0.7)  | -2.0<br>(-0.7) | -1.6<br>(-1.2) | -1.0<br>(-2.2) |
|            | 55-59세 | 5.4<br>(-0.7)  | 4.1<br>(-1.8)  | 5.2<br>(1.3)   | 3.2<br>(-0.3)  | 0.4<br>(-1.2)  | 2.3<br>(0.5)   | 1.1<br>(-2.0)  |
|            | 60세 이상 | -5.1<br>(-4.6) | -4.6<br>(1.5)  | -4.7<br>(-1.4) | -8.0<br>(1.7)  | -3.8<br>(-0.3) | -4.6<br>(-2.5) | -2.5<br>(-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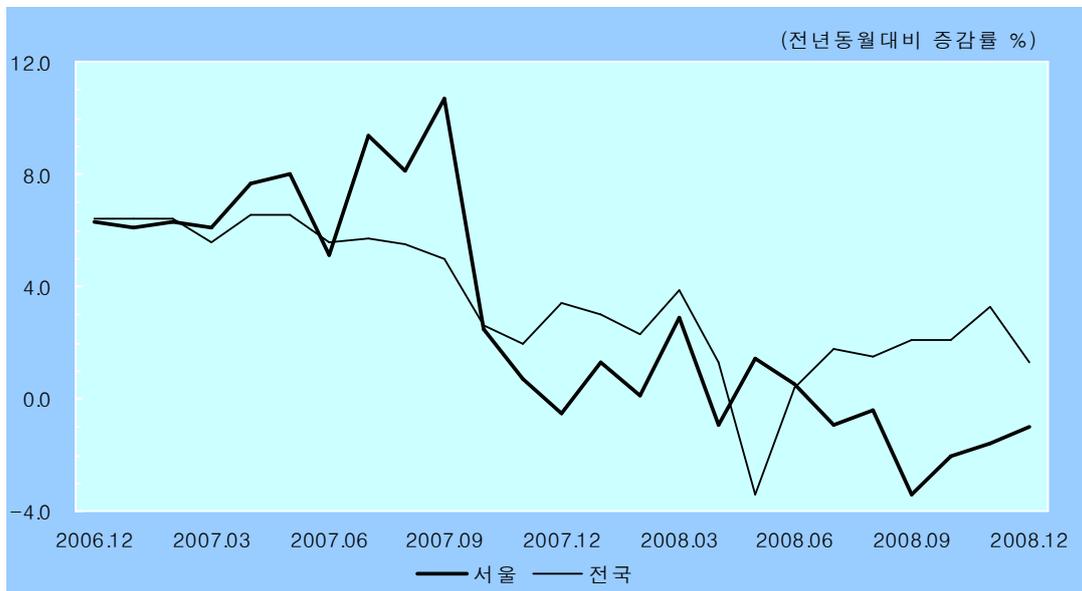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기능기계조작 및 서비스업 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60천명(7.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1천명(2.7%)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80천명(-6.0%),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7천명(-1.7%), 서비스·판매종사자 13천명(-1.1%)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는 증가**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14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70천명(-5.5%)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0천명(0.3%)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56천명(-5.1%), 무급가족종사자는 15천명(-7.7%)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5천명(2.9%)이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35천명(-2.8%), 일용근로자는 10천명(-1.8%)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4.9%)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천명(-2.0%)이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천명(4.4%), 18~35시간 취업자는 17천명(5.1%)이 각각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0천명(3.2%)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178천명(-11.3%)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7.2%)이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 구 분     |                 | 2007년          | 2008년          |                |                |                |                |                |
|---------|-----------------|----------------|----------------|----------------|----------------|----------------|----------------|----------------|
|         |                 | 12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산업별     | 제조업             | -8.0<br>(0.2)  | -6.3<br>(-2.1) | -9.7<br>(-5.9) | -5.5<br>(8.3)  | -8.9<br>(-1.8) | -9.3<br>(-8.9) | -9.8<br>(-0.4) |
|         | SOC 및 기타서비스업    | 1.6<br>(-1.5)  | 0.7<br>(0.6)   | 1.2<br>(-0.1)  | -0.1<br>(-1.5) | -0.2<br>(0.0)  | -0.5<br>(1.1)  | 0.1<br>(-0.9)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4.7<br>(-1.0)  | 0.0<br>(-0.2)  | -0.4<br>(-1.1) | -0.3<br>(-0.3) | -0.4<br>(1.3)  | 1.3<br>(0.9)   | 1.9<br>(-0.4)  |
|         | 도소매·음식숙박        | -3.0<br>(2.0)  | 2.3<br>(2.5)   | 3.7<br>(0.8)   | 1.0<br>(-3.5)  | 2.1<br>(-0.4)  | -0.9<br>(-0.4) | -1.4<br>(1.5)  |
|         | 전기·운수·통신·금융     | 2.4<br>(-6.8)  | -1.6<br>(-2.8) | 1.0<br>(2.3)   | -2.6<br>(-3.2) | -2.9<br>(-0.6) | -4.1<br>(5.3)  | -0.7<br>(-3.6) |
|         | 건설업             | 2.3<br>(-7.9)  | 1.3<br>(2.2)   | 0.9<br>(-0.9)  | 0.1<br>(1.9)   | -3.3<br>(-3.4) | -2.1<br>(1.7)  | -1.9<br>(-7.7) |
| 직업별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 6.8<br>(1.1)   | 0.6<br>(1.8)   | -0.5<br>(-1.0) | -0.8<br>(0.0)  | -2.0<br>(-1.9) | -0.4<br>(0.7)  | -1.7<br>(-0.3) |
|         |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 -2.5<br>(-3.9) | -5.4<br>(-1.2) | -4.2<br>(-0.3) | -4.8<br>(0.1)  | -5.3<br>(0.4)  | -6.5<br>(-3.7) | -6.0<br>(-3.4) |
|         | 서비스·판매종사자       | -2.5<br>(-2.0) | 1.9<br>(0.4)   | 2.3<br>(0.5)   | 0.0<br>(-2.4)  | 0.1<br>(0.9)   | -2.2<br>(2.4)  | -1.1<br>(-0.9) |
|         | 사무종사자           | -3.1<br>(-0.1) | 3.5<br>(-0.7)  | 2.6<br>(-3.5)  | 4.3<br>(2.1)   | 4.2<br>(0.5)   | 5.6<br>(0.0)   | 7.9<br>(2.0)   |
| 종사상 지위별 | 임금근로자           | 1.6<br>(-1.0)  | 0.9<br>(0.5)   | 0.0<br>(-2.2)  | 0.0<br>(1.1)   | -0.6<br>(-0.3) | 0.0<br>(-0.1)  | 0.3<br>(-0.7)  |
|         | 비임금근로자          | -3.8<br>(-2.1) | -3.7<br>(-0.7) | -1.1<br>(3.0)  | -4.4<br>(-4.1) | -3.8<br>(0.2)  | -6.1<br>(-0.5) | -5.5<br>(-1.5) |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 12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실업자는 7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26.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10.8%) 증가하였고, 여자는 2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여자는 2.6%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계절조정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보합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5~19세와 30~50대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15~19세와 30~50대에서 상승한 반면,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하락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감소

- 2월 실업자는 1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6.6%)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8.0%)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56천명으로 24천명(-30.0%)이 감소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고, 여자는 2.6%로 1.1%포인트 하락

## ■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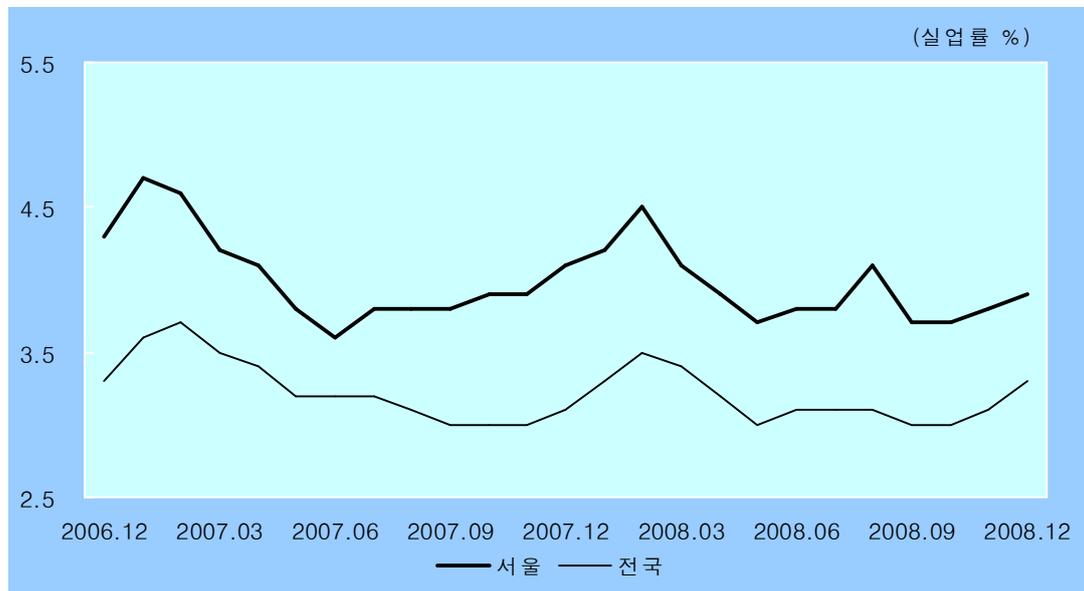
- 2008년 12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 대비 1.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9%로 전년동월대비 1.7%p, 여자는 48.8%로 0.8%포인트 각각 하락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 구 분 |    | 2007년 | 2008년 |      |      |      |      |      |      |
|-----|----|-------|-------|------|------|------|------|------|------|
|     |    | 12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실업률 | 전국 | 3.1   | 3.1   | 3.1  | 3.0  | 3.0  | 3.1  | 3.3  |      |
|     | 서울 | 4.1   | 3.8   | 4.1  | 3.7  | 3.7  | 3.8  | 3.9  |      |
|     | 성별 | 남자    | 4.4   | 4.1  | 4.3  | 4.1  | 4.2  | 4.6  | 4.8  |
|     |    | 여자    | 3.7   | 3.4  | 3.8  | 3.1  | 3.0  | 2.8  | 2.6  |
| 고용률 | 전국 | 59.1  | 60.3  | 59.6 | 59.8 | 60.0 | 59.9 | 58.4 |      |
|     | 서울 | 59.8  | 60.2  | 59.6 | 59.5 | 59.3 | 59.1 | 58.6 |      |
|     | 성별 | 남자    | 70.6  | 71.4 | 70.9 | 70.3 | 70.1 | 69.9 | 68.9 |
|     |    | 여자    | 49.6  | 49.6 | 49.0 | 49.2 | 49.1 | 49.0 | 48.8 |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2008년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954,160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4%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3,014,715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1.3%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37.9%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24.3%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250.7% 증가
- 공공부문은 공기업의 신규 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로 대폭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재개발공사 부문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 증가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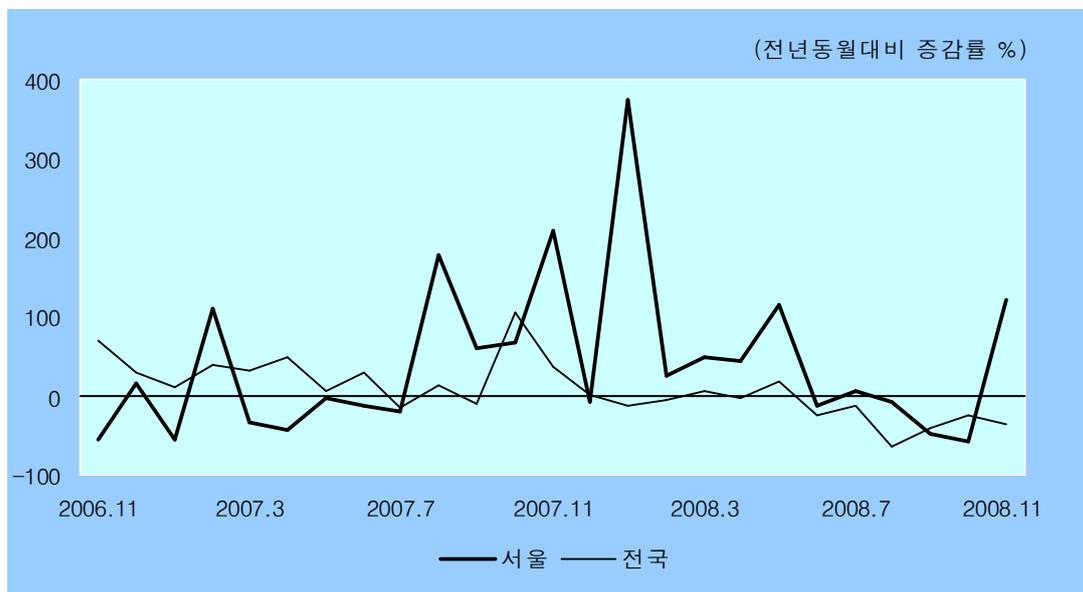
- 2008년 11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978.9천㎡로 전년동월 대비 143.1% 증가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17.6% 증가, 연립주택은 86.4% 감소, 아파트는 151.4%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모든 부문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가운데 상업 68.7%, 문교 및 사회 부문이 545.9%, 기타 부문이 550%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       |       | 전년동월비<br>증감률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 11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 전국       | 12,310 | 5,274 | 6,084 | 5,436 | 8,131 | 7,954 | -35.4        | -2.2        |       |
| 서울       | 1,362  | 940   | 845   | 1,085 | 926   | 3,014 | 121.3        | 121.3       |       |
| 발주<br>자별 | 공공     | 265   | 230   | 98    | 75    | 573   | 596          | 124.3       | 124.3 |
|          | 민간     | 657   | 709   | 747   | 983   | 229   | 2,307        | 250.7       | 907.4 |
| 공종<br>별  | 건축     | 917   | 813   | 815   | 1,013 | 874   | 2,855        | 211.1       | 226.7 |
|          | 토목     | 442   | 122   | 29    | 61    | 50    | 158          | -64.1       | 216.0 |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         |         | 전년 동월대<br>비<br>증감률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 11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 서울   | 813.9 | 3,720.3 | 3,031.9 | 1,441.2 | 1,912.4 | 1,978.9 | 143.1              | 3.5         |       |
| 주거용  | 소 계   | 29.5    | 975.7   | 97.3    | 68.5    | 38.4    | 29.7               | 0.7         | -22.7 |
|      | 단 독   | 1.7     | 15.9    | 10.8    | 10.0    | 13.3    | 8.8                | 417.6       | -33.8 |
|      | 연 립   | 20.6    | 7.4     | 12.2    | 1.0     | 7.2     | 2.8                | -86.4       | -61.1 |
|      | 아파트   | 7.2     | 952.4   | 74.3    | 57.5    | 17.9    | 18.1               | 151.4       | 1.1   |
| 비주거용 | 소 계   | 784.5   | 2,744.6 | 2,934.6 | 1,372.7 | 1,874.0 | 1,949.2            | 148.5       | 4.0   |
|      | 상 업   | 696.6   | 1,740.0 | 2,242.7 | 1,048.0 | 1,367.4 | 1,175.1            | 68.7        | -14.1 |
|      | 공 업   | 0       | 1.3     | 174.4   | 27.5    | 34.7    | 207.0              | -           | 496.5 |
|      | 문교/사회 | 87.2    | 819.2   | 465.7   | 289.5   | 462.8   | 563.2              | 545.9       | 21.7  |
|      | 기 타   | 0.6     | 184.1   | 51.8    | 7.7     | 9.1     | 3.9                | 550.0       | -57.1 |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1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확대

## ■ 1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확대

- 1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겨울철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더욱 한산해지며 전월대비 -0.7%로 하락 폭이 확대
- 지역별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지역이 증가하고 하락 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1.2%), 경기(-1.1%) 등 수도권의 하락 폭이 확대되고, 광역시(-0.4%)도 하락 반전

## ■ 1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확대

- 강북지역(-0.9%)에서는 보합을 보인 종로구(0.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마포구(-1.7%)가 성산동 아이파크 등 입주물량 증가와 매수세 실종으로 크게 하락하고, 노원구(-1.7%)가 경기침체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크게 하락
- 강남지역(-1.6%)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 및 급매물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매수수요 부족으로 강남구(-3.0%), 서초구(-2.4%), 송파구(-2.3%) 등 지역의 하락 폭이 크게 확대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 12월   | 11월   | 12월   |               |             |      |
| 전 국         | 100.0 | 103.9 | 103.1 | 3.1           | -0.7        |      |
| 서 울         | 100.0 | 106.3 | 105.0 | 5.1           | -1.2        |      |
| 아 파 트       | 100.0 | 104.9 | 103.2 | 3.2           | -1.6        |      |
| 지역별<br>주택매매 | 강북    | 100.0 | 109.7 | 108.8         | 8.8         | -0.9 |
|             | 강남    | 100.0 | 102.9 | 101.3         | 1.3         | -1.6 |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하락지역은 노원구, 마포구, 광진구, 은평구**

- 강북 지역에서 크게 하락한 지역 중에서 마포구(-1.7%)가 성산동 아이파크 등 입주물량 증가와 매수세 실종으로 크게 하락하고, 노원구(-1.7%)가 경기침체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크게 하락
- 광진구(-1.4%)와 은평구(-1.1%)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종로구(0.0%)가 보합세를 나타낸 외 모든 지역의 매매가격이 하락

■ **강남 주요 하락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 강남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 및 급매물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매수 수요 부족으로 강남구(-3.0%), 서초구(-2.4%), 송파구(-2.3%) 등 지역의 하락 폭이 크게 확대
- 그 외에도 강동구(-2.3%)가 크게 하락하였고 강서구(-1.5%), 관악구(-1.4%)도 큰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모든 구가 하락세

■ **12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하락세 유지**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2월 26일 기준)은 1,748만원으로 전월(1,771만원)보다 크게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149만원), 용산구(2,562만원), 서초구(2,530만원), 송파구(2,245만원), 양천구(1,856만원), 광진구(1,800만원)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미달하는 구는 금천구(1,026만원), 은평구(1,079만원), 중랑구(1,127만원), 강북구(1,145만원) 등 순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1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하락 폭 크게 확대

#### ■ 12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하락 폭 크게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이동수요 감소와 겨울철 비수기가 겹쳐 거래가 더욱 한산해진 가운데 전월대비 -1.1%로 하락 폭이 크게 확대
- 수도권(-1.7%)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고, 광역시(-0.4%)와 기타지방(-0.4%)도 하락 반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 하락하여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0.5%, -0.9%로 하락 폭이 확대되며 하락세가 지속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 중형, 소형이 각각 -1.4%, -1.2%, -0.8%로 규모 전반에 걸쳐 하락 폭이 확대된 가운데 대형과 중형의 하락이 두드러짐

#### ■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크게 하락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2.0% 크게 하락
- 강북지역(-1.6%)에서는 광진구(-2.6%)가 인근 잠실지역과 강동구 입주물량 증가 여파로 크게 하락하고, 은평구(-2.4%), 도봉구(-2.2%)도 경기불황에 따른 전세수요 감소로 크게 하락
- 강남지역(-2.5%)에서는 서초구(-5.4%)가 반포자이 입주에 따른 물량 증가로 크게 하락하고, 송파구(-4.0%)는 기존 물량의 대기기간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신규단지 물량적체로 하락 폭이 더욱 확대함. 강남구(-3.6%)도 인근 서초송파구 입주물량과 삼성동 힐스테이트 2,070세대 입주로 하락 폭이 확대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 12월   | 11월   | 12월   |               |             |      |
| 전 국         | 100.0 | 102.8 | 101.7 | 1.7           | -1.1        |      |
| 서울          | 100.0 | 103.2 | 101.1 | 1.1           | -2.0        |      |
| 아 파트        | 100.0 | 101.0 | 98.2  | -1.8          | -2.7        |      |
| 지역별<br>주택전세 | 강북    | 100.0 | 105.1 | 103.5         | 3.5         | -1.6 |
|             | 강남    | 100.0 | 101.3 | 98.8          | -1.2        |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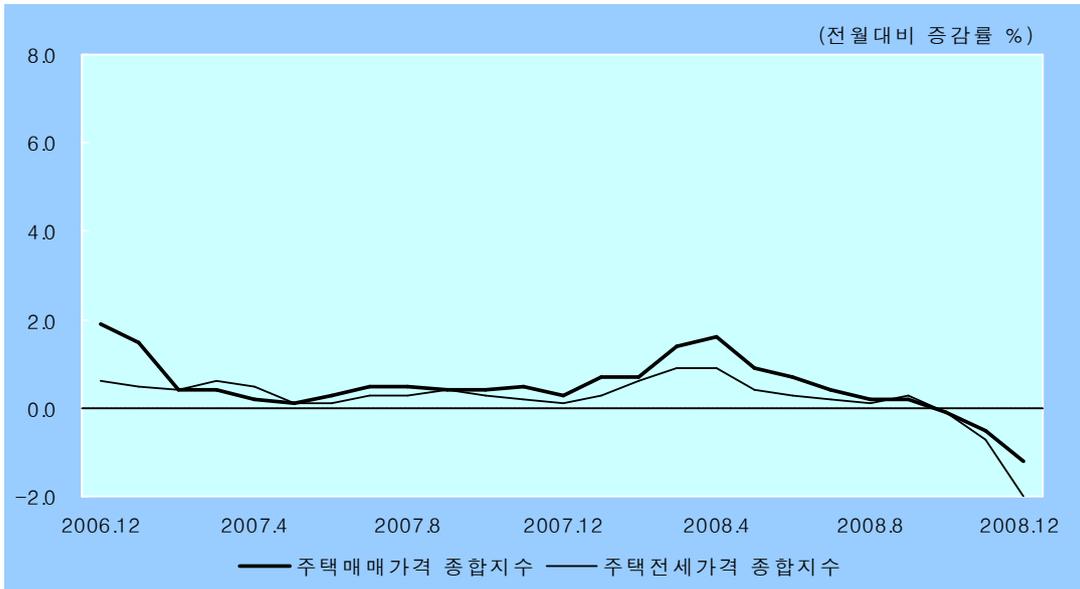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하락지역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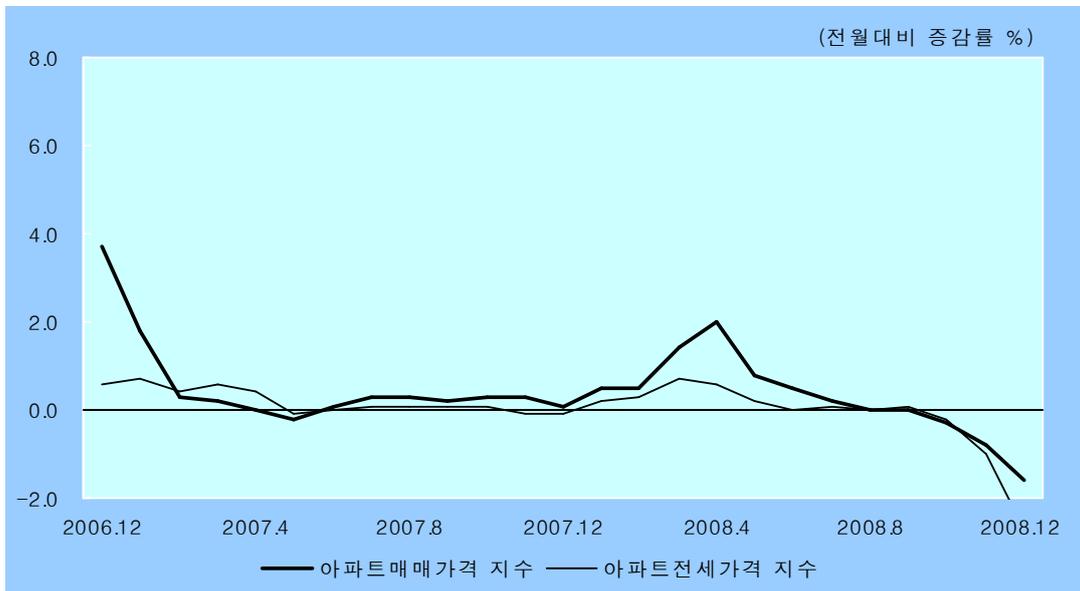
- 강남지역(-2.5%)에서는 서초구(-5.4%), 송파구(-4.0%), 강남구(-3.6%)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강동구(-3.5%), 관악구(-2.8%)도 크게 하락
- 강북지역에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광진구(-2.6%), 은평구(-2.4%), 도봉구(-2.2%)가 크게 하락하였고 그 외에도 마포구(-1.9%), 성동구(-1.8%), 용산구(-1.8%)도 하락세가 크게 나타남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의 39.8%부터 8월의 39.1%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9월, 10월, 11월 모두 38.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에는 38.7%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2월 전국 평균 52.4%보다 13.7%p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전국과의 격차(1월의 12.0%p부터 6월의 13.5%p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7월과 8월에는 13.4%p, 9월과 10월은 13.6%p, 11월, 12월은 13.7%p의 같은 수준 유지) 폭이 다소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4%, 강남 36.4%로 12월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소폭 확대되었고 12월 다시 하락(3월의 8.7%p에서 8월의 5.0%p까지 하락세 지속하여 격차 축소, 9월의 5.1%p부터 11월의 5.3%p까지 확대, 12월에 5.0%p 기록)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 장단기시장금리 큰 폭 하락

## 금리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하락세 지속
  - 12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확산 등으로 3% 중반까지 하락한 가운데 은행채, 회사채 등 장기 크레딧物 금리도 큰 폭 하락
  - 특히 은행채(3년, AAA) 금리는 최근 시장안정화 조치의 수혜가 집중되면서 크레딧物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회사채(3년, AAA) 금리도 국고채 및 은행채 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
- CD(91일) 유통수익률 큰 폭 하락
  - 12월 중 CD(91일) 유통수익률의 큰 폭 하락에 따른 은행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하락 폭이 100bp에 육박(12월초 7% 중반 → 12월말 6% 중반)
- 12월 기준 장·단기 시장금리 큰 폭 하락
  - 12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및 유동성공급 확대,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장단기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회사채CP 발행규모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여건이 개선
  - 자금흐름면에서도 10~11월중 은행으로 몰렸던 자금이 은행 수신금리 큰 폭 하락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크레딧物 매수여력이 확충

## 주가

- 12월 KOSPI 지수 상당 폭 상승
  - KOSPI 지수는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상당 폭 상승 (08.10.24일 939p → 11월말 1,076p → 12월말 1,124p → 09.1.7일 1,228p)
- 12월중 외국인 투자자 순 매수로 전환
  - 외국인 투자자가 5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를 보임
  - 외 국 인: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0.8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 구분          | 2007년                 | 2008년    |          |          |          |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 12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금리          | 국고채(3년)               | 5.89     | 5.77     | 5.74     | 4.47     | 4.87     | 3.97        | -18.48 |
|             | CD(91일물)              | 5.73     | 5.79     | 5.83     | 5.98     | 5.45     | 4.68        | -14.13 |
|             | 콜금리(1일)               | 4.99     | 5.22     | 5.22     | 4.88     | 4.00     | 3.27        | -18.25 |
|             | 장단기 금리차 <sup>1)</sup> | 0.16     | -0.02    | -0.09    | -1.51    | -0.58    | -0.71       | 22.41  |
| 주가          | KOSPI                 | 1,908.60 | 1,537.54 | 1,446.10 | 1,201.70 | 1,073.95 | 1,114.90    | 3.81   |
|             | KOSDAQ                | 722.3    | 507.14   | 444.16   | 348.31   | 310.48   | 324.98      | 4.67   |
| 환율 (₩/US\$) |                       | 930.2    | 1047.11  | 1136.64  | 1326.85  | 1400.81  | 1,368.80    | -2.29  |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2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견조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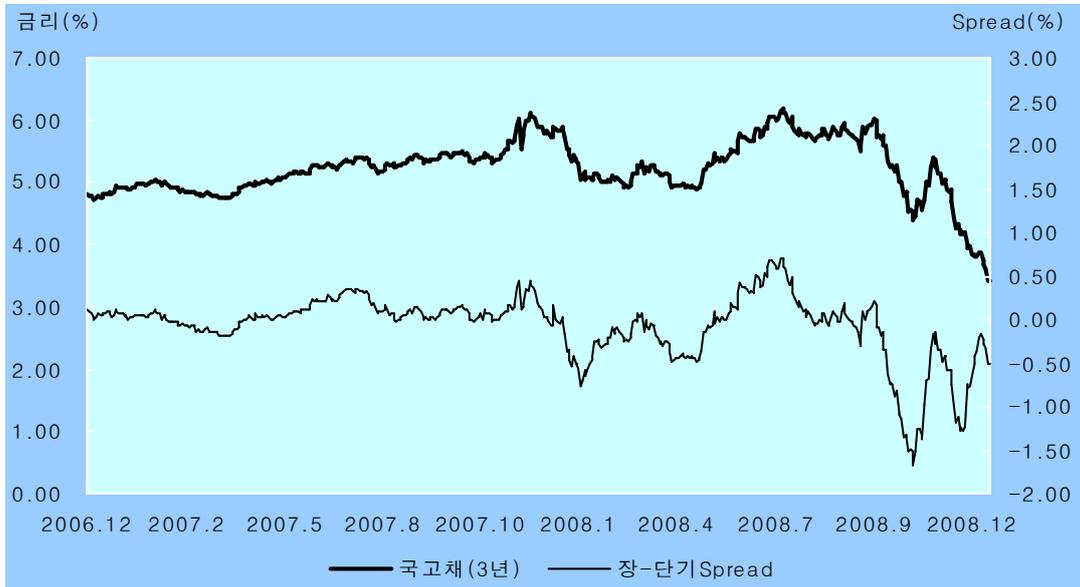
-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11.3일 발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 증가세  
 (10월 +1.4조원 → 11월 +1.8조원 → 12월 +1.6조원)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 구분                    | 2007년 | 2008년 |     |     |     |      | 월말잔액  |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연중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월   | 12월   |             |
| 가 계 대 출 <sup>1)</sup> | 17.8  | 2.2   | 2.1 | 1.4 | 1.8 | 1.6  | 386.9 | 388.4 | 0.39        |
| 주택담보대출 <sup>2)</sup>  | 4.6   | 1.0   | 1.7 | 1.0 | 1.8 | 2.3  | 237.4 | 239.7 | 0.97        |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 13    | 1.2   | 0.5 | 0.4 | 0.1 | -0.8 | 147.5 | 146.8 | -0.47       |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 11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06조 4,742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6,514억원 (0.6%) 증가
- 11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7조 3,12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7,422억원 (0.6%)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       | 2007년        | 2008년       |             |             |             | 전월대비<br>증감액 | 전월대비<br>증감률 |
|----|-------|--------------|-------------|-------------|-------------|-------------|-------------|-------------|
|    |       | 11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전국 | 예금은행  | 807,189.40   | 891,376.3   | 900,567.8   | 913,084.4   | 920,259.6   | 7,175.2     | 0.8         |
|    | 비은행기관 | 252,825.70   | 278,008.3   | 280,423.2   | 285,738.4   | 286,214.6   | 476.2       | 0.2         |
|    | 합계    | 1,060,015.10 | 1,169,384.6 | 1,180,991.0 | 1,198,822.8 | 1,206,474.2 | 7,651.4     | 0.6         |
| 서울 | 예금은행  | 343,211.30   | 390,593.6   | 396,236.5   | 405,074.2   | 408,252.2   | 3,178.0     | 0.8         |
|    | 비은행기관 | 79,830.40    | 85,777.1    | 85,971.0    | 89,495.9    | 89,060.1    | -435.8      | -0.5        |
|    | 합계    | 423,041.70   | 476,370.7   | 482,207.5   | 494,570.1   | 497,312.3   | 2,742.2     | 0.6         |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1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서울의 11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10월 보다 0.1%p 증가한 61.5%를 기록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9월에 비하여 10월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11월에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87.6%에 머무름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    | 2007년 | 2008년 |      |      |      | 전월대비<br>증감 |
|----|-------|-------|------|------|------|------------|
|    | 11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전국 | 87.9  | 88.5  | 88.5 | 87.6 | 87.6 | 0.0        |
| 서울 | 58.4  | 61.2  | 61.2 | 61.4 | 61.5 | 0.1        |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 · 업 · 동 · 향 |

## 11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1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331개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과 수출소바설비투자 부진 등의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4.1%(1,057개), 전월대비 16.2%(644개) 감소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대폭 감소
  - 1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146개로 전년동월대비 29.1%(471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9.6%(279개) 감소
- 서울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 감소
  - 미국발 금융악재로 글로벌 신용위기 확산 등의 대외악재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의 모든 업종에서 전월대비 신설법인 수 대폭 감소
  - 전월대비 제조업은 18.8%(30개), 서비스업은 18.5%(219개) 감소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은 37.0%(30개)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 구분       | 2007년 | 2008년 |       |       |       | 전월비  |       | 전년동월비  |       |
|----------|-------|-------|-------|-------|-------|------|-------|--------|-------|
|          | 11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전국       | 4,388 | 3,713 | 3,671 | 3,975 | 3,331 | -644 | -16.2 | -1,057 | -24.1 |
| 서울       | 1,617 | 1,406 | 1,291 | 1,425 | 1,146 | -279 | -19.6 | -471   | -29.1 |
| 서비스업     | 1,380 | 1,134 | 1,069 | 1,184 | 965   | -219 | -18.5 | -415   | -30.1 |
| 제조업      | 101   | 140   | 122   | 160   | 130   | -30  | -18.8 | 29     | 28.7  |
| 건설 및 설비업 | 133   | 123   | 98    | 81    | 51    | -30  | -37.0 | -82    | -61.7 |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수준 유지

####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11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3%로 전월과 동일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97개로, 전월(321개) 보다 2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각각 43개, 8개, 12개씩 감소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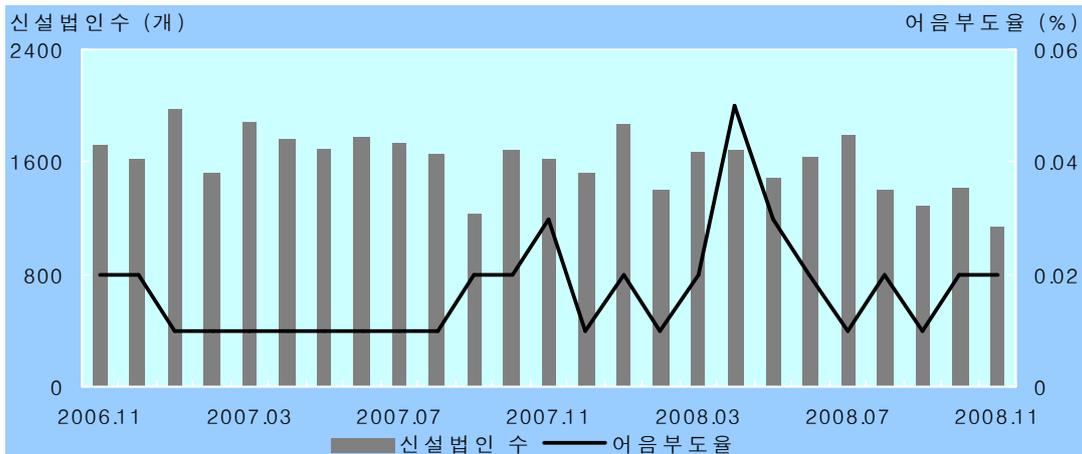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 수준 유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91개로 전월보다 20개 감소하였으며 지방도 210개에서 206개로 4개 감소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 구 분 |        | 2007년 | 2008년 |      |      |      | 전월비 |       | 전년동월비 |       |
|-----|--------|-------|-------|------|------|------|-----|-------|-------|-------|
|     |        | 11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전국  | 어음부도율  | 0.04  | 0.02  | 0.02 | 0.03 | 0.03 | 0   | 0.0   | 0     | -25.0 |
|     | 부도업체 수 | 210   | 178   | 203  | 321  | 297  | -24 | -7.5  | 87    | 41.4  |
| 서울  | 어음부도율  | 0.03  | 0.02  | 0.01 | 0.02 | 0.02 | 0   | 0.0   | 0     | -33.3 |
|     | 부도업체 수 | 59    | 73    | 80   | 111  | 91   | -20 | -18.0 | 32    | 54.2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소상공인 집중 보증지원체제 강화

#### ■ 기업체별 평균 지원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2월중 3,679건, 63,648백만원 공급하여 전월 대비 건수는 5.4%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0.3% 감소에 그쳐, 기업체별 지원 평균금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이는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기업체별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실시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        |        | 전월비  |      | (전년동월비) |       |
|--------|--------|--------|--------|--------|--------|--------|------|------|---------|-------|
|        | 12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건 수    | 838    | 4,304  | 4,158  | 3,971  | 3,888  | 3,679  | -209 | -5.4 | 2,841   | 339.0 |
| 금 액    | 26,479 | 60,928 | 69,917 | 71,059 | 63,816 | 63,648 | -168 | -0.3 | 37,169  | 140.4 |
| 건당평균금액 | 31.6   | 14.2   | 16.8   | 17.9   | 16.4   | 17.3   | 0.9  | 5.5  | -14.3   | -45.3 |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입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업종비율 전월수준 유지

- 건수 기준 산정 시, 12월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은 전월 대비 1%내의 변동내역을 보임 으로서 뚜렷한 변화는 없음
- 그러나 금액별 지원현황을 보았을 때, 타 업종은 소폭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은 전월대비 2.3% 증가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 분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서비스업   | 기타     | 합계     |
|-----|-------|--------|--------|--------|--------|--------|
| 건수  | 231   | 1,239  | 774    | 688    | 747    | 3,679  |
| 비율  | 6.3   | 33.7   | 21.0   | 18.7   | 20.3   | 100    |
| 금액  | 5,943 | 23,827 | 11,737 | 11,280 | 10,861 | 63,648 |
| 비율  | 9.4   | 37.4   | 18.4   | 17.7   | 17.1   | 100    |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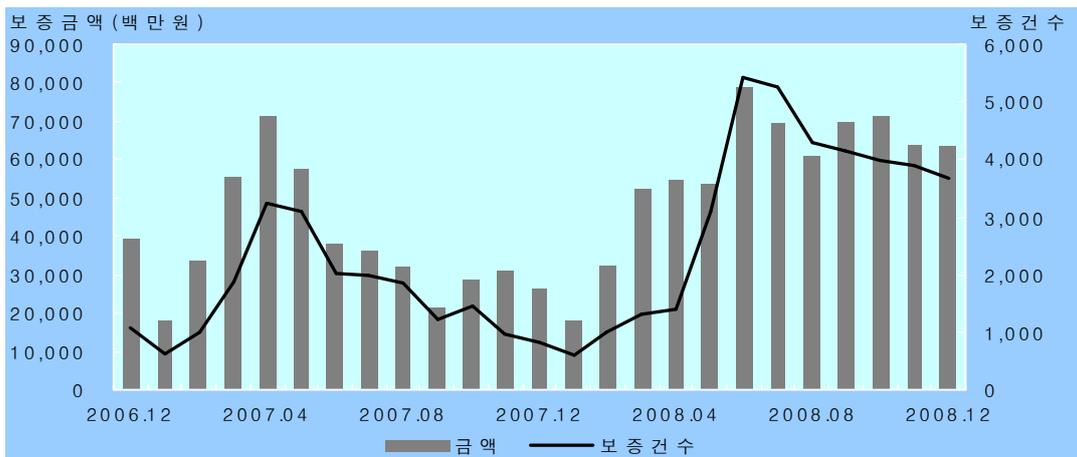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2008.11.28에 종료됨에 따라, 전월 통계분석 결과 소상공인의 비중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12월 금액기준 자료분석 결과,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의 시행과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
- 나머지 기업군인 소기업과 중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월대비 각각 3.2%, 1.3%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실시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 구분   |     | 2008.10 | 2008.11 | 2008.12 | 전월대비증감 |
|------|-----|---------|---------|---------|--------|
| 소상공인 | 건 수 | 3,821   | 3,730   | 3,527   | -203   |
|      | 비율  | 96.2    | 95.9    | 95.9    | 0      |
|      | 금액  | 62,041  | 54,414  | 57,149  | 2,735  |
|      | 비율  | 87.3    | 85.3    | 89.8    | 4.5    |
| 소기업  | 건 수 | 126     | 125     | 107     | -18    |
|      | 비율  | 3.2     | 3.2     | 2.9     | -0.3   |
|      | 금액  | 7,090   | 6,780   | 4,713   | -2,067 |
|      | 비율  | 10.0    | 10.6    | 7.4     | -3.2   |
| 중기업  | 건 수 | 24      | 33      | 45      | 12     |
|      | 비율  | 0.6     | 0.8     | 1.2     | 0.4    |
|      | 금액  | 1,928   | 2,622   | 1,787   | -835   |
|      | 비율  | 2.7     | 4.1     | 2.8     | -1.3   |
| 합계   | 건 수 | 3,971   | 3,888   | 3,679   | -209   |
|      | 비율  | 100     | 100     | 100     | 0      |
|      | 금액  | 71,059  | 63,816  | 63,648  | -168   |
|      | 비율  | 100     | 100     | 100     | 0      |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전국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
  - 12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9% 감소한 271.2억달러, 수입은 21.6% 감소한 265.8억달러를 기록
  - 세계경기침체 및 소비수요 급감으로 수출, 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세
  -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 경기침체와 개도국의 성장둔화로 확산되어, 중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수입수요가 급감하는 추세
- 2008년 석유제품·선박류·철강제품 전년대비 큰 폭 증가세
  - 2008년 석유제품·선박류·철강제품 등은 2007년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반기계도 견조한 수출 호조세 유지
  - 석유제품은 유가상승과 연동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선박류는 안정된 수주물량 및 안정된 노사관계로 수출급증세 지속
- 12월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2월 서울의 수출은 22.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였고, 수입은 54.7억달러로 16.2% 감소
  - 서울의 수출은 전월대비 3.4%, 수입은 2.1% 감소하여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보다 큼
- 12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173,803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427,866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의류, 곡실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철강관 및 철강선이고 수입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 구분 | 2007년 | 2008년  |        |        |        |        | 전년동월비  |        | 전월비   |        |      |
|----|-------|--------|--------|--------|--------|--------|--------|--------|-------|--------|------|
|    |       | 12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전국 | 수출    | 33,030 | 36,789 | 37,591 | 37,370 | 29,015 | 27,118 | -5,912 | -17.9 | -1,897 | -6.5 |
|    | 수입    | 33,896 | 40,601 | 39,650 | 36,158 | 28,877 | 26,576 | -7,320 | -21.6 | -2,301 | -8.0 |
| 서울 | 수출    | 2,299  | 2,567  | 2,780  | 2,916  | 2,368  | 2,287  | -12    | -0.5  | -81    | -3.4 |
|    | 수입    | 6,528  | 7,986  | 8,009  | 7,465  | 5,588  | 5,469  | -1,059 | -16.2 | -119   | -2.1 |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 순위 | 품목명     | 2007년 12월 |       | 2008년 12월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  | 편직물     | 162,505   | -8.9  | 173,803   | 7.0   |
| 2  | 무선통신기기  | 83,397    | -4.0  | 145,907   | 75.0  |
| 3  | 컴퓨터     | 86,324    | 6.4   | 101,762   | 17.9  |
| 4  | 반도체     | 208,968   | 16.7  | 101,420   | -51.5 |
| 5  | 고무제품    | 107,136   | 16.8  | 95,021    | -11.3 |
| 6  | 의류      | 92,762    | -36.5 | 85,494    | -7.8  |
| 7  | 자동차부품   | 99,709    | 10.9  | 84,244    | -15.5 |
| 8  | 자동차     | 58,821    | 51.1  | 81,472    | 38.5  |
| 9  | 합성수지    | 102,488   | 20.6  | 73,638    | -28.2 |
| 10 | 철강관및철강선 | 7,948     | 55.7  | 61,128    | 669.1 |
| 합계 |         | 2,299,471 | 3.5   | 2,287,261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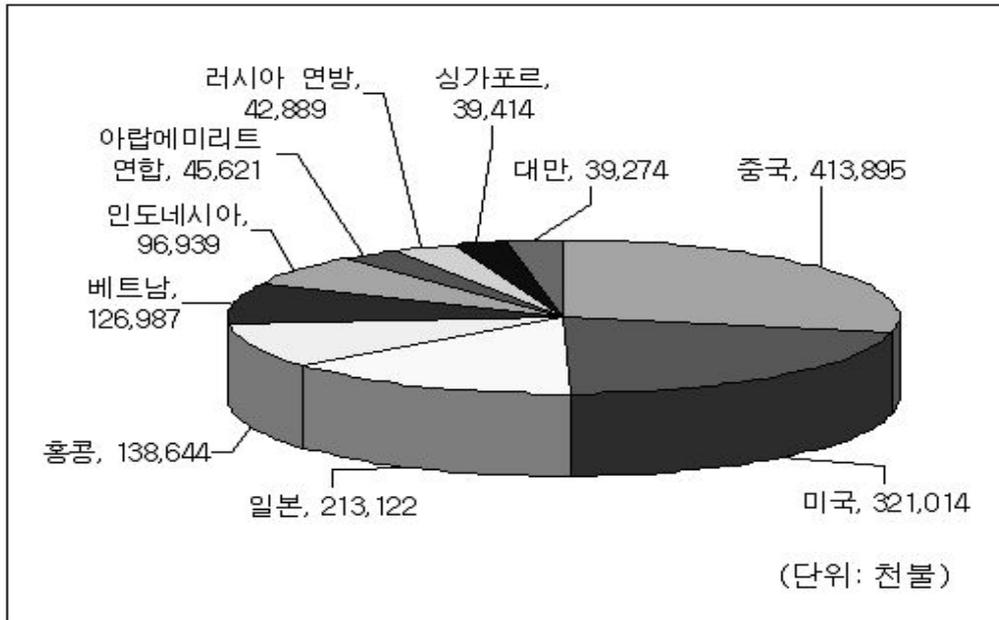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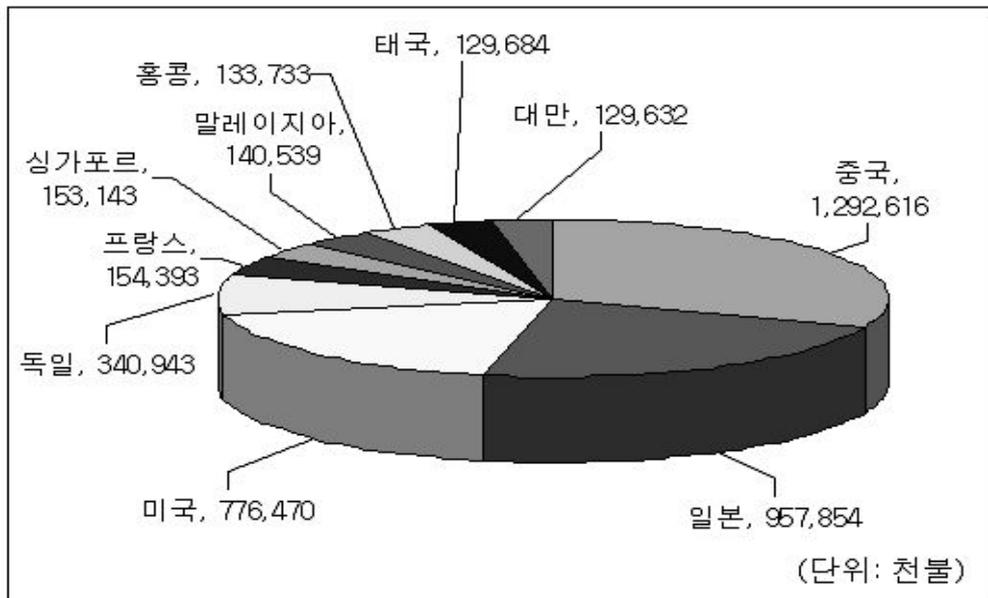
(단위: 천불, %)

| 순위 | 품목명          | 2007년 12월 |       | 2008년 12월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  | 반도체          | 399,803   | 18.4  | 427,866   | 7.0     |
| 2  | 컴퓨터          | 590,411   | 39.5  | 414,635   | -29.8   |
| 3  | 의류           | 223,012   | 13.1  | 184,242   | -17.4   |
| 4  | 곡실류          | 86,305    | 16.9  | 153,405   | 77.7    |
| 5  | LPG          | 11,765    | -     | 138,014   | 1,073.1 |
| 6  |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 8,498     | -     | 127,068   | 1,395.2 |
| 7  |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 175,774   | 57.2  | 124,266   | -29.3   |
| 8  | 전자응용기기       | 120,468   | -14.4 | 124,127   | 3.0     |
| 9  | 무선통신기기       | 93,256    | -26.5 | 117,652   | 26.2    |
| 10 | 계측제어분석기      | 109,459   | 13.3  | 117,488   | 7.3     |
| 합계 |              | 6,527,795 | 26.5  | 5,468,875 | -16.2   |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